

대학부설연구소 세계적 수준 향상 '국가연구소' 10년간 1000억 지원

교육부·과기정통부서 재원 분담 올해 4곳, 2027년까지 8곳 추가 4월 말까지 신규과제 접수 진행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원을 분담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한 뒤 2027년까지 8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등을 대학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으로 대형·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임계규모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

약한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융복합·대형 연구거점이 될 대학연구소를 육성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을 3가지 주안점에 초점을 뒀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로는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된다.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9월 사업 시작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10일 확정·공고했으며,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과거 국가 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착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취약계층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49만 명 대상... 총 680억 투입 개인별로 연간 14만원 씩 지원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약 680억 원을 투입하여 49만 939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4만 원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 되어 즉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만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의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지역문화본부)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 1,951곳의 등록을 유치하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더욱 확대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약자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서울시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 마포구 최우수상

양천·노원·송파 등 5개구에 우수상

서울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약자 동행 지원 사업 30개를 평가해 마포·양천·노원·동대문·송파·성동구의 6개 우수 사업에 상을 줬다.

마포구의 '함께하는 구강 건강 동행관리' 사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마

포구는 서강 보건지소에 치과 진료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구강 검진 및 치과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

또 ▲양천구의 '희망 플러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노원구의 고립 은둔 청년 가상 회사 체험 '노스한 컴퍼니' ▲동대문구의 '장애인 친화 동행 미용실' ▲송파구의 '경계를 넘어 내일로 2.0' ▲성동구의 장애인 특화 '모두의 도서관'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hki1@

대학등록금 인상분 활용, 장학금 확대편성

교육부, 학생 학비부담 완화 일환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속적 확대

15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올해 잇따라 인상을 결정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국

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기존 14만명에서 올해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지난해 대비 약 6000억원 증액된 5조4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 5%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9학기 연속 1.7%로 동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국가장학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1일 (화) 음력: 1월 14일

수도권 날씨: -5 ~ -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7:26 | 해질: 18:07

지역별 날씨: 연천 -11/5, 동두천 -11/6, 가평 -11/5, 파주 -13/5, 서울 -5/6, 양평 -11/6, 인천 -3/5, 수원 -5/6, 용인 -5/6, 평택 -1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가자, 다른 중동국에 일부 줄 수도" /사진 뉴스 ▲머스크 "재무부에 접근금지 명령 내린 판사 탄핵해야"

▲이스라엘, 휴전 중 헤즈볼라 또 공습... "무기 밀수" ▲창안차·동평차 경영통합 계획... "중국 1위 자동차사로"

▲일본 작년 경상흑자 280조원으로 '역대 최대'... 엔화 약세 영향 ▲이라크 난민 569명 시리아 수용소에서 귀국... 양국 송환계획 따라